

국내·지역 정상급 뮤지션 어우러진 가을 길목 라이브 무대

‘노브레인’, ‘크라잉넛’……. 이쯤만 들어도 음악 팬들의 가슴에 록의 ‘파란’을 일으키는 뮤지션들이 광주에 출몰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광주음악창작소가 주관하는 ‘2023 광주 사운드파크 페스티벌’이 오는 15~16일 양일에 걸쳐 광주사직공원에서 열린다. 올해 8회차를 맞은 이번 행사 주제는 ‘비밀의 낙원 (A secret paradise)’.

아스팔트 땅과 빌딩 숲을 벗어나 도심 기슭에 위치한 사직공원에서 푸른 녹음과 어우러진 라이브 공연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 뮤지션과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가 함께 무대에 오르는 점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기대하게 한다.

15일에는 인디문화 1세대 펑크 록의 초석 ‘노브레인’을 볼 수 있다. 히트곡 ‘넌 내게 반했어’ 등 강렬한 사운드로 사랑을 받아온 설명이 필요 없는 밴드.



우물안개구리 <우물안개구리 제공>

‘2023 광주 사운드파크 페스티벌’ ‘비밀의 낙원’ 15~16일 사직공원 ‘NS 재즈밴드’·‘우안개’·‘이형주’·‘노브레인’·‘크라잉넛’·‘적재’ 등 참여

드. 이어 글렌 체크는 김원준, 강혁준, 제이보 세 멤버로 구성된 일렉트로니카 그룹으로 신디사이저를 활용한 장르 ‘신스팝(Synthpop)’ 분야를 주로 연주한다. 또 최근 EP 앨범 ‘타임라인’을 발매하며 주가를 올리고 있는 아티스트 박소은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광주지역 예술가들도 라인업에 있다. 광주를 거점으로 10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는 ‘NS 재즈밴드’는 정적인 쿼텟과 현대 모던재즈를 연주하는 팀이다. 이날 무대에 올라 버니 밀러의 ‘Bernie tune’을 비밥 사운드(자유분방한 재즈 스타일)로 연주할 예정. 이어 찰리 채플린곡 ‘스마일’을 모던사운드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날’, 들국화의 ‘매일 그대와’ 등을 재즈풍으로 들려준다.

우안개(우물안개구리)는 2009년부터 꾸준히 활동해오고 있는 그룹사운드다. “추운 겨울을 지나/ 선명한 오월의 태양이/ 외투를 벗겨/ 잊혀지지 않는 것/ 지울 수 없는 고통이/ 서서히 흐려져”(‘오월의 밤’ 중) 등 노랫말은 지역사와 음악을 결합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올해 출시한 4번째 앨범 수록곡들이 레퍼토리에 있는데, ‘아 있나 집에 너 바르렀을 때 딱 그쪽이 내 쪽이다 싶어가고 나가니 꼬셔 브러트’와 같은 광주 사투리 곡명은 자못 친근하다. 이외 ‘가끔 안부나 묻고 싶어요’ 등 다양한 곡을



지난해 사운드파크 페스티벌 행사장 전경.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공>

감상할 수 있다. 지난 2018, 2020년 오월창작가요제 장려상, 동상에 빛나는 아티스트 ‘이형주’도 무대에 오른다. 지난 9일 발매한 정규 앨범 수록곡을 베이스스트 정수민과 드러머 양재혁과 함께 연주한다. 광주에서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는 ‘paper boy’의 데뷔 무대도 예정되었다. 기타 김세형, 베이스 문현철, 드럼 설진환으로 구성된 3인조 밴드로 부담 없는 ‘동아리 음악’을 추구하는 팀이다. 이외 ‘아 디오스 오디오’ 등 다양한 개인 및 그룹사운드도 무대에 오른다. 행사 이틀 날 16일에는 ‘크라잉넛’이 공연을 펼친다. 1993년 창단한 펑크 록밴드 1세대로 그동안

‘달달리자’ 등 수많은 히트곡을 선보여 왔다. 또 개인 아티스트 적재는 ‘별 보러 가자’ 등 감성적인 제목과 담백한 가사로 이름을 알린 싱어송라이터로 젊은 세대에겐 익숙하다. 아울러 풍경을 음악에 담아내는 아티스트 ‘다린’, 장르를 넘나드는 밴드 ‘KARDI’, 담백하게 청춘을 노래하는 ‘SURL’, 마음을 노래하는 ‘유다빈 밴드’부터 신예 팝 락밴드 ‘퍼플웨이’까지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펼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김길수 석은 “이번 행사는 도심에서 열리는 수준 높은 라이브 공연”이라며 “올해에도 실

력 있는 아티스트 라인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1일권 4만4000원, 양일권 6만6000원. 예매는 티켓링크.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따스하면서 편안한 ‘옛날 옛날 한옥의 창호문’

11월 18일까지 비움박물관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다가왔다. 휴일이면 전통 한옥마루에 앉아 호젓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듯하다. 한옥의 창호문을 모티브로 한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비움박물관은 오는 18일 가을 기획전 ‘옛날 옛날 한옥의 창호문’전을 연다. 오는 11월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창호를 만날 수 있다. 이번 기획전은 창호에 행복이 머물고 있는 작은문, 평화를 기다려주는 좁은문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우리 전통 한옥의 창과 문, 창호는 나무와 한지로 만들어져 있어 넉넉하고 평화로운 기운을 전달한다. 선선한 바람과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 때 고즈넉하면서도 풍부한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주요 전시품은 한옥에서 창과 문으로 실제 사용되었던 창호다. 비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약 100여개의 창호가 전시된다. 화려하거나 무겁고 투명한 아파르의 고가 주택 창과 문과는 대비되는 전통 창호는 눈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매력을 담고 있다. 수장고 형식의 민속박물관인 비움박물관은 3만



비움박물관에 있는 전통 창호들. <비움박물관 제공>

여 집의 방대한 소장품을 가운데 계절마다 기획전일 수 있는 기회”라며 “화려하고 편리한 현대 문명에 지친 이들에게 따스함과 평화를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신진 예술가 발굴 ‘제33회 배동신어등미술제’

10월4일~5일 회화·서예·문인화 온라인 접수

배동신(1920~2008) 화백은 수채화의 지평을 넓혀온 선구자로 꼽힌다. 평소 “한국인의 정서는 기름보다 물로 표현되어야한다”라고 말해왔던 그는 평생 수채화에 집중했다. 전통화법과 현대적 회화를 접목하는 등 기법의 조화미를 개척하며 일가를 이루었다. 배 화백은 광주 송정리에서 태어났다. 한약방에서 일하며 가업을 잇기 바랬던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예술의 길을 걸었다. 16세 때 한국의 명산을 그리려던 금강산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에 금강산을 찾았고 우연히 박수근을 만나 사사하고 문학수, 장리석 등과도 교류했다. 제33회 배동신어등미술제가 열린다. 광산구가 주최하고 광산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번 배동신어등미술제(대회장 오동근·미술제)는 오는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열린다. 올해로 33회째를 맞는 미술제는 회화를 비롯해 서예, 문인화를 공모하며 누구나(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참가할 수 있다. 추천·초대 작가의 경우 공모접수 기간과 동일하며 기일 내 작품 이미지 파일을 광산문화원 온라인(gsc3377@hanmail.net)으로 출품해야 한다. 회화는 10월 4일~5일(오후 6시)까지 이며 작품 이미지 파일을 온라인(gsc3377@hanmail.net) 접수해야 한다. 1차 이미지 파일(1인 2점 이내, 30호 이상·50호 이내)을 심사 후 2차 실제 작품심사로 진행한다. 서예·문인화 공모는 10월 4일~5일(오후 6시)까지 이며 방문·우편(실제 작품) 접수를 같이한다. 서예 공모 규격은 (70cm×135cm 전지, 70cm×200cm 국전지), 문인화 공모 규격은 (70cm×135cm 전지)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업중인 배동신 화백.

회화 대상에 300만원 및 개인전 개최,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30만원 등이 수여된다. 서예·문인화 여등대상에 300만원과 개인전 개최,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30만원 등이 수여된다. 출품 원서는 공모 마감일까지 광산구청 누리집, 광산문화원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시상식 및 전시회는 오는 11월 16일 소촌아트백토리 큐브미술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오동근 광산문화원 대외장은 “올해 3년만에 다시 주관하는 배동신어등미술제는 배동신화백의 예술 정신을 잇는 신진 예술가의 발굴과 미술문화 향유를 위해 마련됐다”며 “창의적인 작품들이 많이 출품돼 우리 지역의 예술적 잠재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의 062-941-337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우리들의 정원, 휴심정’ 15일 현판식·기념행사

광주시 제1호 민간정원...네트워킹 파티·정원 산책 등

‘정원문화’는 선진국 등 해외를 중심으로 보편화돼 있다. 국내에도 팬데믹을 거치며 야외공간 수요가 증가했으나 마땅한 공간이 부족했다. 그러나 정원문화가 각광을 받으면서 민간정원은 도심 속 문화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광주시 제1호 민간정원으로 지정된 ‘휴심정(도천동 122-16)’의 현판식 및 기념행사가 도심 속 정원에서 열려 눈길을 끈다. 조경사 미래엘엔디(대표 박화실)는 휴심정 개원을 기념하는 ‘우리들의 정원, 휴심정’을 오는 15일(오후 3시 30분) 휴심정 야외정원 일원에서 진행한다. 1부 행사는 네트워킹 파티 및 휴심정 결과보고, 민간정원 산책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탁트인 야외정원을 라운딩하며 경관 감상의 시간을 갖는다. 이어지는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되는 2부 행사에서는 토크콘서트, 네트워킹 파티가 예정돼

있다. 광주전남연구원 송태갑 박사를 초대해 ‘대전환시대, 정원선도도시 광주비전 및 미래구상’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 앤데믹과 맞물린 ‘대전환시대’ 이후 각광받고 있는 야외 정원문화가 도시문화를 선도하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광주의 미래비전을 함께 나누는 계획이다. 광주시의회 기후특별위원회 박필순 의원(민주당, 광산3)을 좌장으로 정책토크콘서트 ‘광주, 정원을 말한다’도 펼쳐진다. 오부영 민간정원협회장과 김진강 호남대 교수, 심창욱 광주시의원, 광주시 녹지정책과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휴심정의 민간정원 지정은 지난 4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산림청 산하기관) 컨설팅을 통해 진행됐다. 휴심정은 월평균 2만 5000여 명 방문객을 기록하며 지역 청년예술가들에게 가든콘서트, 정원문화 전파의 문화 허브로 자리매김해왔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 예비부부 대상 야외결혼식 지원 등 지역사회



휴심정 야외정원 전경. <미래농원 제공>

를 위한 사회적 책임도 함께한다는 계획이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전남문화재단, 마한 역사 ‘인정도서’ 발간 기초연구 착수

(재)전남문화재단 문화재연구소는 마한 역사를 담은 ‘인정도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삼한 문화와 더불어 한반도 문화의 한 뿌리가 되었음에도 교과서(검정교과서)에서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은 ‘마한사’ 서술을 확대하기 위해 진행된다. 영산강 유역에 발원하고 터를 잡았던 마한사를 고증해, 한반도 역사사의 저변을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며 대행기관인 마한역사문화연구회 주관으로 추진된다. 오는 15일에는 나주 동신대 투계터에서

‘2023 마한 인정도서 학술포럼’도 열린다. 포럼에는 마한역사 전문가 및 역사교과서 집필자, 교육자 등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서 마한사 서술현황 등을 짚어본다. 기초발표에 초당대 박해현 교수가 나서며 조영광 전남대 교수 등이 ‘역대 역사교과서와 교육과정의 마한사 서술분석’ 외 다양한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전남문화재단 관계자는 “마한역사 고증 및 복원을 위한 조사·연구를 확대해 그동안 소외되었던 한반도 고대사를 재정립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